

# 김산호 회화극본

The story of Holy Buddha

# 부처님

제28화 우루빌라 카사파의 귀의



**아**, 아니...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? 그 무서운 독룡이 마치 지렁이처럼 허우적거리고 오히려 이 사문은?

“브라만은 그렇게 놀라지 말라! 어제 저녁에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. 나는 이미 삶과 죽음의 바다를 건넜도다.”

“사문이니여, 그대는 도대체 누구시옵니까? 제가 어제 저녁에는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처럼 훌륭한 사문을 죽음의 함정에 빠지게 하였습니다. 그러나 지금 보니 그 무서운 독룡(毒龍)의 항복을 받고 조금도 중요하는 기색이 없어 보이니 이미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신 듯 보입니다. 청하옵건대 사문의 정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.”



**나** 는 이미 붓다가 된 몸이로다. 너는 나를 뺨이나 불을 다루는 안기랏사(Angirasas)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너희들처럼 사악(邪惡)한 길을 가는 자들의 생각일 뿐이다. 나는 이미 천안(天眼)으로 살펴보니 너희들이 무고한 중생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잘못된 길로 유도하니, 그것을 어찌 사문으로서 할 일이라 할 것인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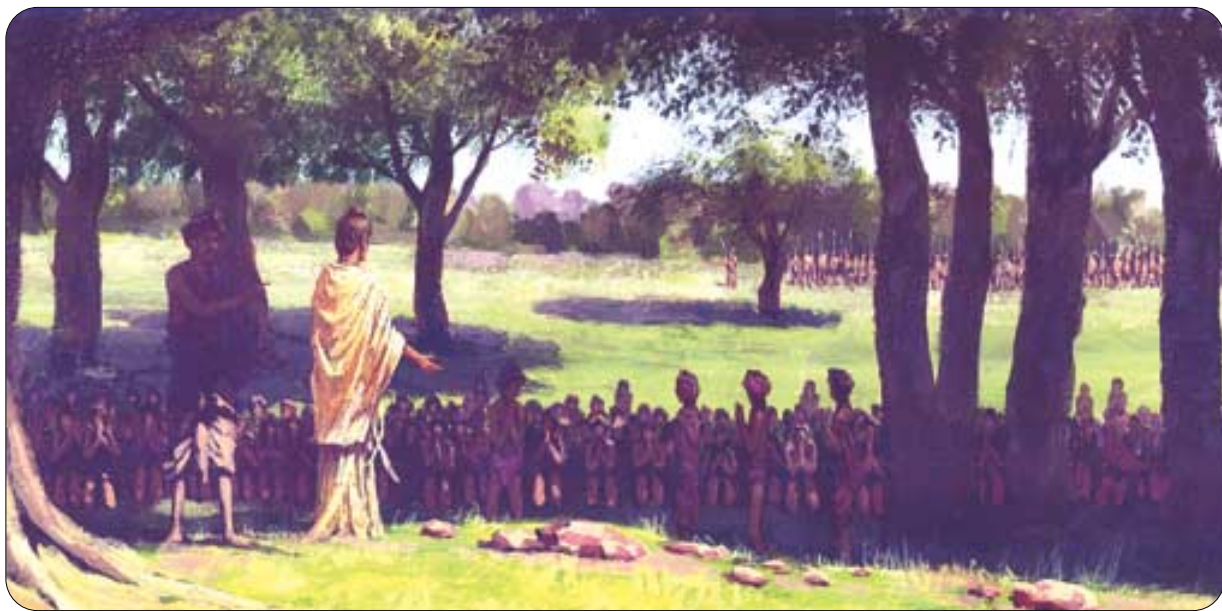
카사파는 들으라. 너는 불의 신 아그니의 가호를 받게 되어 성스러운 불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했다. 그러나 그런 것이 한갓 천박한 속인수임을 나는 알고 있다. 너는 너를 따르는 너의 제자들을 속일 수 있었지만, 이 붓다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. 또 독룡(毒龍) 따위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일으켰다. 그러나 그런 것도 다 비열한 속인수일 뿐이다. 따라서 너는 성자(聖者)도 아니며 더욱이 성자의 도(道)를 갖춘 자도 아니다.”



**“지** 금에 붓다를 만나 저의 참모습을 되돌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. 지금이라도 부처님께 귀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여 참된 불자의 길을 가겠습니다.”

우루빌라 카사파의 간절한 요청에 붓다는 그의 귀의를 허락하고 구족계(具足戒, 정식으로 출가 수행승이 되는 의식을 주었다).

붓다가 된 카사파는 그가 거느리고 있는 오백명의 수행자들과 함께 붓다의 수행승으로 허락을 받아들였다. 이리하여 마가다국에 있는 제일 큰 교단이 그대로 붓다에게 들어오게 되었다. 이때 붓다는 가야위르사(象頭山) 사원에서 새로운 제자들을 향하여 '타오르는 불의 법문'이라는 유명한 법문을 설하게 된다.



**“비** 구들이여, 모든 것은 불타고 있다. 눈이 불타고 있다. 눈에 비치는 형상이 불타고 있다. 불에 의한 인식도 불타고 있다. 눈과 그 대상과의 접촉도 불타고 있다. 눈이 접촉하는데서 생기는 감수(感受), 즉 즐겁고, 괴롭고,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것들도 불타고 있다. 왜 불타고 있는 것일까. 탐욕의 불, 노여움의 불, 어리석음의 불도 타오르고 있다. 태어나고, 늙고, 병들고, 죽고, 걱정하고, 슬퍼하는 불로 타오르고 있다.

비구들이여, 이와 같이 관찰할 수 있는 현명한 제자들은 눈이나 형상, 그 접촉이나 감수, 그리고 귀나 코, 혀나 몸이나, 마음에 대해서도 모두 하잘 것 없다고 생각한다. 그리되면 집착에서 떠난다. 집착을 버리면 해탈(解脫)한다.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인식이 생기고 생존의 밑바닥은 이미 다 없어진다. 청정한 수행은 이미 완성되었으며 해야 할 일은 다 마쳤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윤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알게 되는 것이다.”

부처님의 설법으로 눈이 열린 새로운 오백 명의 제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믿어온 불의 신 아그니의 허구에 분노하여, 제 스스로 아그니사원을 철저히 파괴하여 다시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처럼 잘못 수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였다.

이상과 같은 불전의 기록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지만, 그 당시의 사회를 지배하던 브라만교(Brahmanism)에 대한 신흥 종교인 불교의 도전, 그리고 정복을 의미 한다.

붓다는 또 다른 의미에서 과연 전통성왕임에 틀림없었다. 당시 브라만교에서는 성화를 모시는 것을 제사의 중심을 이루는 신성관념으로 믿고 있었으므로 불의 관념을 파괴시키는 것은 확실히 브라만교를 깨는 행위인 것이었다. 한 가지 뚜렷한 예로써 불교에선 열반(涅槃)을 니르바나(Nirvana)라 하는데 그 의미는 불이 꺼져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불의 의미가 본시 번뇌(煩惱, Klesas)를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**마** 가다국 제일의 대 사원으로 불을 숭배하여 모셨던 이 역사적인 사원은 그동안 그곳에서 몸 담았던 승려들에 의하여 철저히 파괴되어 니련선하(Nairanjana) 강물 속으로 던져졌다. 이 사건이야말로 당시 마가다국 사람들의 정신계를 지배했던 사교(邪敎)에 대한 붓다의 승리를 말하는 것으로 불교가 전 세계로 전도되게 되는 그 첫 걸음을 상징하는 것이다.

